

# 『漢韓大辭典』에 수록된 『史記·列傳』 관련어휘 誤謬研究

최 태 훈  
(건국대학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한대사전』에 기재된 『사기·열전』 관련 어휘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5가지의 문제를 규정(옳게 바꿈)한 것이다. 필자는 크게 의미해석 오류수정, 의미해석 보충수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미해석 오류수정에서는 “가여”, “교칙”, “관채”의 풀이가 『한한대사전』에서 잘못 기재되어있음을 밝혔다. 독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그럴듯한 해석으로 본의를 상실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각은 “빌려 줌→주다”, “정리함→옛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 수식, 교정윤식(색)”, “관찰하여 채택함. 살펴서 취함→(주의 깊게) 찾아보다, 물색하다”로 의미해석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의미해석 보충수정에서는 “효실”, “심념”의 의미항목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실력을 드러내다”, “깊은 시름에 잠기다”의 풀이를 보충해 주었다.

또한 국내의 학자들의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여” 항목은 정범진의 풀이가 가장 정확했다. “교칙” 항목은 박일봉, 왕리기, 양종현 학자달의 풀이가 비교적 타당했다. “관채” 항목은 박일봉과 왕리기의 번역이 적합했다. “효실” 항목에서는 김원중이 올바른 해석을 했으며, “심념” 항목은 왕중의 번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漢韓大辭典』, 『史記·列傳』, 假與, 校飭, 觀采, 效實, 深念

## Ⅰ. 序言

### 1. 研究目的

檀國大學 동양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完刊한 『漢韓大辭典』(전체 16권)은 많은 연구자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다. 한·중·일 삼국은 모두 한자라는 공통의 문화적 기호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기 한자로 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의 한자 문헌을 수용하고,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사전은 한자와 한문어휘를 집대성하여 5만 5천여 자, 45만여 어휘를 자랑하고 있다.<sup>1)</sup> 東洋 最大の 사전임을 자부할 만하며, 일본·대만·중국의 대사전에 의존해왔던 한국 학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구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 『漢韓大辭典』도 여러 방면에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즉 『漢韓大辭典』의 내용을 傳達하거나 학술적 根據로 삼을 때 크고 작은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漢韓大辭典』 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보려고 한다. 20페이지 남짓한 정도의 논문에서 다양한 문제를 정밀하게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 연구자 한 사람이 대사전의 오류에 대해 전부 언급하는 것은 당초에 불가능한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漢韓大辭典』 안에 보이는 『史記·列傳』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意味解釋 誤謬修正, 意味解釋 補充修正이 필요한 항목을 몇 가지 선별하여 설명하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앞으로 있을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檀國大學 동양학연구소는 『漢韓大辭典』을 인터넷 상에 서비스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은 사전의 오류 수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에 따른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史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우리민

1)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족에게 미친 영향을 두루 고려한다면, 오늘날에 출간된 『史記』 번역서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학자들이 『史記』를 완역하였으나, 그 細部를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漢韓大辭典』의 잘못된 의미해석 糾正작업을 통해 번역서의 오류가 다른 학문 분야와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인 것이다.

## 2. 研究方法

필자는 『漢韓大辭典』안에 보이는 『史記·列傳』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意味解釋 誤謬修正, 意味解釋 補充修正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漢韓大辭典』의 오류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본 사전과 연계해서 『史記·列傳』의 어휘만을 특별히 검토하는 논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漢語大詞典』과 관련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중국적 특성에 맞춰 문제를 고찰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용이 짧고, 증명의 과정이 소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의 특징을 살리고, 한국사건의 문제 해결에 적용시켜 논증함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의 영역을 우리 사건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둘째, CNKI로 찾아보면 『史記』연구와 관련되어 언어학적 접근을 한 논문이 대략 1400 편이 검색이 되고 있다. 이 안에서 『史記』의 어휘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추려내도록 하겠다. 대부분 『漢語大詞典』을 기준으로 『史記』 관련 어휘를 검토한 논문을 검색할 것이며, 오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본 연구의 잘못된 의미해석이 보이는 어휘 선별에 참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내려진다.

셋째, 『史記』연구에 대한 선배 학자들의 업적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백화로 번역된 『史記』는 수십 종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번역서는 丁範鎮(외 다수), 林東錫, 金元中, 朴一峰<sup>2)</sup>의 것이 있

며, 국외의 경우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본 연구에서 선택한 것을 소개하자면, 王利器 主編『史記注譯』, 楊鍾賢·郝志達 主編『文白對照全譯史記』,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白話史記』<sup>3)</sup>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번역서는『史記三家注』와 瀧川資言이 考證한『史記會注考證』등을 참고 하였고, 기타 유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문 번역하거나 백화 번역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선배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비교대조하여 좀 더 정확한 어휘풀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번역본의 장단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번역오류에 대해서도 미흡하나마 언급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漢韓大辭典』은 前代의 사전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4)</sup> 주요하게는 日本의『大漢和辭典』, 臺灣의『中文大辭典』, 中國의『漢語大詞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앞서 나온 이러한 사전이 동일 의미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해석과 출전예문을 언급했는지를 찾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漢韓大辭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미 국내 학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漢語大詞典』흔글 컴퓨터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은 인물이나 어휘를 검색하는 작업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2) 국내 대표번역서로 이들의 것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범진(외 다수), 김원중은『本紀』, 『表』, 『書』, 『世家』, 『列傳』을 완역하였다. 박일봉은『世家』를 제외하고 완역하였다. 임동석은 비록『列傳』만을 번역하였으나 “임동석 중국사상 100”과 같은 다수의 작업을 해온 학자임으로 필자가 선택하였다.

3) 일반적으로 사기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적이라 한다면『全注全譯史記』, 『史記箋證』, 『史記注譯』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史記注譯』을 선택하였다. 백화문 번역에 비교적 공을 들인 것으로는, 중국학자가 중심이 된『文白對照全譯史記』와 대만 학자들이 주축인 된『白話史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국외 대표 번역서로 선택하였다.

4)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이 『漢語大詞典』이 『漢韓大辭典』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漢語大詞典』 한글판은 필자의 연구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 『漢韓大辭典』 誤謬 分析 및 『史記』 번역서 考察

### 1. 意味解釋 誤謬修正

#### 1.1 『漢韓大辭典』 1권 1231쪽의 “假與” 항목

【假與 가여】빌려 줌. 假予. 『史記, 孟嘗君傳』 有賢者, 竊假與之. ……

먼저 “假與”가 나오는 『史記, 孟嘗君列傳』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후의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孟嘗君이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그의 가신 魏子가 孟嘗君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세 번이나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孟嘗君은 그 이유를 묻자 魏子가 답하였다. “賢者가 있어서 남모르게 그에게 ‘假與’했습니다. 그래서 바치지 못했습니다.”<sup>5)</sup> 이런 까닭에 孟嘗君은 노하고 위자는 해직된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孟嘗君은 반란을 계획했다는 모함을 받고 도망치게 된다. 그러자 魏子로부터 곡식을 받은 賢者가 이 소식을 듣고는 湣王에게 孟嘗君이 결백함을 上訴하고 자결한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하여 학자들은 “假與”의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鄭守國: “어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가만히 그에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sup>6)</sup>

林東錫: “賢者가 있어서 그에게 몰래 빌려 주었는데 아직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sup>7)</sup>

5) 有賢者, 竊假與之, 以故不致入. 孟嘗君怒而退魏子…… 居數年, 人或毀孟嘗君於齊湣王曰, 孟嘗君將為亂. …… 孟嘗君廼奔. 魏子所與粟賢者聞之, 乃上書言孟嘗君不作亂. 請以身為盟, 遂自剄宮門, 以明孟嘗君.

6) 『史記列傳下』卷5, 丁範鎮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219쪽.

金元中: “어진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sup>8)</sup>

朴一峰: “어떤 현인에게 몰래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치지 못했습니다.”<sup>9)</sup>

曹相成: “有個賢德的人，我私自用您的名義給了他，因此沒有得到財物”<sup>10)</sup>

張鳳嶠: “有位賢德的人，我私自借您的名義把租稅贈給了他，所以沒有收回來”<sup>11)</sup>

林明德: “我私下把收到的稅租，假託您的名到送一位賢良的人，因此出去收了三次稅租，連一次都沒有繳回來”<sup>12)</sup>

“假與” 해석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수국은 “주다”, 임동석·김원중·박일봉은 “빌려 주다”, 나머지 중국학자들은 모두 “(孟嘗君의 名義를) 빌려 (곡식을) 주다”로 구분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타당할까? 일단 스토리의 전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빌려주다”라는 풀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魏子가 賢者에게 세금(곡식)을 빌려주었다면, 賢者는 과연 孟嘗君의 결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을까? 즉 無償으로 준 곡식이 아닌 빌려준 것에 대해, 자결까지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또한 魏子의 이름으로 賢者에게 곡식을 주었다면, 賢者는 그 고마움을 魏子에게 표현해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賢者는 孟嘗君을 위해 죽음으로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賢者 자신은 孟嘗君의 덕을 많이 입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용의 정확을 고려한다면 “빌려 주었다”는 것 보다는 “주었다”는 쪽의 번역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史記列傳』1/4,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318쪽.

8) 『史記列傳』卷1, 金元中 옮김, 민음사, 2007, 386쪽. 김원중의 번역서에서는 “以故不致入”에 대한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 역시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9) 『史記列傳』卷1, 朴一峰 역저, 육문사, 2011, 262쪽.

10) 王利器 主編, 『史記注譯』卷3, 北京: 三秦出版社, 1988, 1807쪽.

11) 楊鍾賢 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卷4,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169쪽.

12) 『白話史記』卷2, 林明德 譯,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1055쪽.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학자들은 진일보한 해석을 하였다. “假與”의 “假”는 빌린다는 의미는 맞지만, 빌리는 대상이 곡식이 아닌 孟嘗君의 이름으로 인식을 한 것이다. 魏子가 孟嘗君의 이름을 빌려(假用, 借, 假託) 賢者에게 곡식을 준(與) 것으로 백화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다른 문장 속의 “假與”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고 만다. 다음은 『漢韓大辭典』 안에서 “假與”가 사용된 예문을 찾아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廣成 광성】……② 원(苑)이름. 『後漢書, 安帝紀』以廣成遊獵地及被災郡國公田假與貧民.<sup>13)</sup>(광성 사냥터와 재난을 입은 군국<sup>14)</sup>의 공전을 빈민에게 주었다. 4권 1266쪽)

【誘導 유도】이끌어 가르침. 인도함…… 『三國志, 吳志, 吳主傳』劉備帥軍來伐, 至巫山·秭歸, 使使誘導武陵蠻夷, 假與印傳, 許之封賞.<sup>15)</sup>(유비가 군사를 통솔하여 정벌하러, 무산·자귀에 이르러, 사신으로 하여금 무릉의 오랑캐를 이끌어 가르쳐서, 도장과 職牒을 주고, 그들에게 관직과 재물을 허락하였다. 12권 901쪽)

위 두 가지 문장을 살펴보면 모두 “빌려주다”로 번역하기에는 어색한 느낌이 있다. 사냥터와 公田을 빈민에게 빌려주면, 그들이 되 값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을까? 되 값을 능력도 없는 대상들에게 “빌려주다”는 번역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냥 “주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둘째 문장에서도 “빌려주다”라는 번역을 사용한다면, 더욱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된다. 사신을 보내 오랑캐를 달래려는 상황인데 도장과 직책을 “빌려주다”라고

13) 『後漢書, 孝安帝紀』로 기재해야함. 『漢韓大辭典』 “廣成” 항목에서는 “孝”자가 빠져있으며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郡國: 郡과 國의 병칭. 전의되어 지방 행정구역을 두루 이르는 말. 漢初에 봉건제도와 군현제도를 병용하여, 郡은 천자에 직속하고 國은 제후들에게 분봉하였다.(『漢韓大辭典』13권 1343쪽)

15) “傳”은 職牒이며, 벼슬을 임명할 때에 주는 사령장이다.(『漢韓大辭典』1권 1332쪽) 封賞: 古時帝王把官爵或財物獎給臣下(봉상. 옛 날에 제왕이 관작 혹은 재물을 신하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다.).(<http://baike.baidu.com/view/9071743.htm>)

풀이한다면, 어불성설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중국학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왕의 이름을 빌어 사냥터와 공전을 준다거나, 유비의 이름을 빌어 도장과 직첩을 준다고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 『史記, 孟嘗君列傳』에서는 孟嘗君의 이름을 빌린(用, 借, 假託) 魏子라는 주체가 매우 정확히 밝혀져 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예문은 魏子和 같이 왕과 유비의 이름을 빌린 주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假與”를 중국학자들의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假與” 문제의 실마리는 『漢韓大辭典』(1권 1227쪽) “假” 항목 ④에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다, 급여하다”의 의미를 기재하고 있으며, 예문에서 “『顏師古注』 假, 給與也(가는 주다의 뜻이다).”로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假”와 “與”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假與”는 同義復詞<sup>16)</sup>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韓大辭典』의 “빌려 줌”이란 의미해석은 마땅히 “주다”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둘째, 국내학자들 가운데 정수국의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머지 국내 학자들의 번역은 『漢韓大辭典』의 의미해석의 오류와 일치함으로 모두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중국학자들의 백화번역은 본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수용한 의역이라 생각되나, “假與”의 사전적 원의를 충분히 살린 해석이라 볼 수는 없다.

## 1.2 『漢韓大辭典』 7권 214쪽의 “校飭” 항목

【校飭 교칙】정리(整理)함. 『史記, 司馬相如傳』 猶兼正列其義, 校飭厥文.

위 “校飭” 항목의 “정리함”이란 의미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史記會注考證』에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集解』徐廣曰, 校'一作祓……『考證』漢書文選'校飭作祓

16) 同義復詞指的是意思相同的兩個(或兩個以上)詞連用, 表示同一個意思的復合詞. (<http://baike.baidu.com/subview/338589/338589.htm>)

飾”<sup>17)</sup> 또한 『史記辭典』을 살펴보면 “飭, 一作“飾””<sup>18)</sup>이라 쓰여 있다. 나아가 『康熙字典』의 풀이를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고 있다: “祓: ……『司馬相如·封禪書』祓飾厥文.『師古註』祓飾者, 除去舊事, 更飾新文.”<sup>19)</sup> 앞의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漢書, 司馬相如傳下』와 『文選, 封禪文』에서는 “校飭厥文”으로 적지 않고 “祓飾厥文”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서로 같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漢韓大辭典』 10권 420 쪽의 “祓飾” 항목을 찾아보았다.

【祓飾 불식】옛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 『漢書·司馬相如傳下』猶兼正列其義, 祓飾厥文, 作『春秋』一藝. 「顏師古注」祓飾者, 言除去舊事, 更飾新文也.

『辭源』,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sup>20)</sup>의 “祓飾” 항목을 찾아보면 모두 『漢韓大辭典』의 의미해석과 일치하며 그 출전예문까지도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漢韓大辭典』 “校飭” 항목의 풀이는 앞의 근거를 토대로 “옛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으로 바꾸어 주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국내의 학자들이 번역한 『史記』에서 “校飭”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金元中: “또 검하여 그 의를 정열하고 그 글을 교감하여 『춘추』 일경을 짓게 하십시오.”<sup>21)</sup>

林東錫: “또 검하여 봉선의 의의를 바르게 列記하여 그 글을 교감하여 『춘추』와 같은 경서를 짓게 하십시오.”<sup>22)</sup>

17)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卷6, 臺北: 天工書局印行, 1989, 5199쪽.

18) 倉修良 主編, 『史記辭典』,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91, 395쪽.

19) 『康熙字典』: <http://www.zdic.net/z/20/kx/7953.htm>

20) 『辭源』下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3, 2267쪽.

『大漢和辭典』卷8,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59, 427쪽.

『中文大辭典』卷6,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 1433쪽.

『漢語大詞典』卷7,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844쪽.

21) 『史記列傳下』卷7, 丁範鎮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953쪽: 이 부분을 번역한 학자는 김원중으로 아래 김원중과 동일인물이다.

金元中: “아울러 그 의를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글을 교감하여 『춘추』같은 경서를 짓게 하십시오”<sup>23)</sup>

朴一峰: “검하여 봉선의 의의를 바르게 열거해 문장을 수식하고 『춘추』와 같은 책을 짓게 하십시오”<sup>24)</sup>

祁念曾: “因而兼天時正人事陳列封禪意義, 校訂潤飾其文, 作為『春秋』筆法新的一經”<sup>25)</sup>

王延海: “還要兼正天時’ 敘列人事, 闡述大義, 校訂潤色其文, 作成象『春秋』一樣的經書.”<sup>26)</sup>

傅錫壬: “并以兼正天時’ 人事, 校飾文章’ 大義, 著成有如『春秋』般的一藝.”<sup>27)</sup>

위의 일곱 가지 번역서는 “校飭”을 “교감”, “수식”, “校訂潤飾(色)”, “校飾”으로 번역하고 있다. 최소한 『漢韓大辭典』과 같이 “정리(整理)”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먼저 도서출판 까치 번역서의 오류부터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그 의를 정열하고 그 글을 교감하여 『春秋』一經을 짓게 하십시오”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책의 해석은 모두 “『春秋』와 같은 경서(象『春秋』一樣的經書. 如春秋般的一藝)를 짓게 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春秋』와 같은 위대한 다른 책을 지으라는 의미이지 교감을 통해 『春秋』를 하나 더 만들라는 뜻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위 해석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하여 장차 종래의 六經을 七經이 되게 하여(將襲舊六為七)”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즉 늘어난 경서는 결코 교감된 『春秋』가 아닌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동석 以下는 “『춘추』와 같은 경서를 짓게 하십시오”로 올바른 번역을 하고 있다.

22) 『史記列傳』4/4,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1363쪽.

23) 『史記列傳』卷2, 金元中 옮김, 민음사, 2007, 548쪽.

24) 『史記列傳』卷2, 朴一峰 역저, 육문사, 2011, 384쪽.

25) 王利器 主編 『史記注譯』卷4, 北京: 三秦出版社, 1988, 2493쪽.

26) 楊鍾賢·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卷5,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332쪽.

27) 『白話史記』卷3, 傅錫壬 譯,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1585쪽.

둘째, 그렇다면 김원중(도서출판 까치), 임동석, 김원중(민음사)의 번역과 같이 “校勘”이란 어휘를 사용해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것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교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sup>28)</sup> 즉 校勘이란 어휘를 사용하려 한다면, 어떤 책의 서로 다른 판본을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그 다음을 구별하고, 그 옳고 그름을 정해야 한다.<sup>29)</sup>

그러나 원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같은 종류의 어떤 책을 비교하여 바로잡을지 내용상 그 대상(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감이란 어휘를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厥文”의 文을 학자들이 작성한 封禪과 관련된 문장으로 인식한다 하여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장을 비교대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감이란 표현은 사용함에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박일봉은 “校飭”을 “수식”이라 옮겨 기재하였다. “수식”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문장을 손질을 하다, 잘 고치다”<sup>30)</sup>의 의미로 기재하고 있다. “옛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이란 뜻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비록 “옛 것 제거”의 의미가 없는 반쪽자리 해석이라 볼 수도 있으나, 문장을 손질하려면 당연히 옛 것을 제거해야 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 “수식”은 아쉽지만 수용할만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한 祔念曾, 王延海의 중국어 백화번역도 “除去舊事, 更飾新文”이라는 原義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校訂潤飾”, “校訂潤色” 역시 비교적 합리적인 풀이를 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傅錫壬의 “校飭”이란 해석은 적합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교정윤식-校(訂潤)飾”을 축약해서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校飭”이란 어휘자체가 현대 중국어 사전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sup>31)</sup> 또한 『漢韓大辭典』을 비롯한 기타 대형 사전을 찾아보면 “校飭”은 모두 “장식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9) <http://baike.baidu.com>: “搜集某书的不同版本,并综合有关资料,互相比较核对, 别其同异,定其正误.”

30) 네이버 중국어사전.

31) 네이버, 다음의 중국어 사전에서 검색되지 않았음.

(裝飾)”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sup>32)</sup> 裝飾이란 표현은 본 문장에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번역이 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校飭” 항목의 의미해석에서 “정리”는 삭제해 주고 “옛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 혹은 “수식”, “교정윤식(색)” 정도의 풀이로 다시 기재해 주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朴一峰, 祁念曾, 王延海의 번역이 비교적 近似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1.3 『漢韓大辭典』 12권 627쪽의 “觀采” 항목

【觀采(採) 관채】관찰하여 채택함. 살펴서 취함. 『史記, 日者列傳』賈誼曰, 吾聞古之聖人, 不居朝廷, 必在卜醫之中. 今吾已見三公九卿朝士大夫, 皆可知矣. 試之卜數中以觀采.……

『大漢和辭典』(卷10 348쪽)을 보면 『漢韓大辭典』과 일치한 의미해석을 찾을 수 있다: “觀采: みて採用する.(보고 채용하다)” 그렇다면 본 항목의 풀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선 위에서 언급한 “觀采” 항목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楚나라 中大夫 宋忠과 博士 賈誼의 대화 가운데 賈誼가 말한 부분이다: “(초나라의 博士 賈誼는) ‘옛 聖人は 조정에 없으면 반드시 점쟁이나 의원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오. 지금 내가 삼공과 구경을 비롯하여 조정의 사대부들을 보니 모두 성인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소. 그러니 점쟁이가 있는 저자거리로 가서 觀采를 시도해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스토리의 전개를 놓고 보면, 宋忠과 賈誼의 의도가 “관찰, 살펴봄(觀)”에 있고 “채택함, 취함(采)”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中大夫와 博士<sup>33)</sup>라는 관직이 비록 고관에 해당하나, 조정에 聖人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 임의로 성

32) 『辭源』,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에서 모두 “裝飾”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문장을 장식하다(校飭厥文)”라고 해석한다면 “校飭”의 본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33) 『史記列傳下』卷7, 丁範鎮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1119쪽 주석: 中大夫, 顧問과 應對를 맡았다. 博士, 西漢 때에는 奉常(景帝 때 太常으로 개칭되었다)에 속하였다. 고금의 사건에 두루 통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후일 漢 武帝의 五經博士는 유교경전을 가르친 것으로 이와는 다르다.

인을 발굴해 “채택(채용)”할 수 없는 職位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宋忠과 賈誼는 성인을 찾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찾아낸 사람을 채택(채용)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만나 깊이 감탄한 司馬季主란 점쟁이를 “채택”하여 군주에게 추천하고, 등용시켰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史記, 太史公自序』를 살펴보면 司馬遷의 의도를 알 수 있다. 齊·楚·秦·趙나라 점술가들의 점치는 방법이 그 풍습에 따라 방법이 달라서 그 大旨를 보기 위해 본 작품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4)</sup> 즉 『史記, 日者列傳』은 인재가 발굴되어 “채택”되어진 과정이 수록된 작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과 사마천의 저작취지<sup>35)</sup> 등을 고려해 본다면, “采”를 “채택함, 취함”이라 풀이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해 어떠한 의미해석을 해주어야 타당할까? 이에 필자는 국내외 학자들이 위 예문에 대해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朴晟鎭: “한 번 시험 삼아 복자 중에서 찾아보아 그 풍도를 살펴봅시다.”<sup>36)</sup>

林東錫: “어디 한번 복술가 가운데 성인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 그 풍모와 도량을 시험해 보지 않겠소.”<sup>37)</sup>

金元中: “그러니 복자 가운데서 (성인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내어 풍모와 도량을 시험해 봅시다.”<sup>38)</sup>

朴一峰: “그러니 오늘은 점쟁이 가운데 성현다운 사람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오”<sup>39)</sup>

田久川: “咱们試着到卜筮行裏去物色一下”<sup>40)</sup>

範君石: “我們試着去看看卜者的風采吧”<sup>41)</sup>

34) 齊·楚·秦·趙爲日者, 各有俗所用. 欲循觀其大旨, 作日者列傳第六十七.

35) 『史記, 日者列傳』은 사마천이 직접 쓴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진위여부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史記, 太史公自序』에 기재되어진 『史記, 日者列傳』의 저작 취지는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36) 『史記列傳下』卷7, 丁範鎭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1120쪽.

37) 『史記列傳』4/4,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1581쪽.

38) 『史記列傳』卷2, 金元中 옮김, 민음사, 2007, 772쪽.

39) 『史記列傳』卷2, 朴一峰 역저, 육문사, 2011, 568쪽.

40) 王利器 主編, 『史記注譯』卷4, 北京: 三秦出版社, 1988, 2664쪽.

施人豪: “我們試着去看看那些卜算者的風采吧”<sup>42)</sup>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자들은 “觀采”를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朴一峰과 田久川은 “찾아보다, 物色”으로 번역하였고, 그 나머지는 전부 “觀”과 “采”를 나누어 “觀”은 “보다”, “采”는 “풍도, 풍모와 도량, 風采”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는 『漢韓大辭典』의 “관찰하여 채택함. 살펴서 취함”이란 의미해석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史記會注考證』을 살펴보면 “찾아보다” 혹은 “풍채를 보다” 類의 풀이는 이미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岡白駒曰, 采, 風采也. ……欲觀其風采. 愚按, 觀采, 猶言物色.(岡白駒는 采를 風采라 했다. ……그 풍채를 보려했다. 내 생각에 觀采는 物色을 말하는 것이다.)”<sup>43)</sup>

瀧川資言은 “觀采”를 “物色”으로 주장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觀采”를 “찾아보다(物色)”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채, 풍도, 풍모의 국어사전적 의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풍채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이 된다. 풍도는 “풍채와 태도”이며, 풍모는 “풍채와 용모”<sup>44)</sup>를 이르는 말이다. 세 가지 어휘는 모두 사람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그러나 『史記, 日者列傳』 전반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면 宋忠과 賈誼가 성인의 드러나 보이는 겉모양, 태도, 용모 등을 살피기 위해 점집이 많은 저잣거리로 간 것은 아닌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조정에 없는 성인을 찾아보러 간 것이지 성인의 외모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위해 점집으로 간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采” 자체를 “풍도, 풍모, 풍채” 등으로 풀이한 번역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필자는 “觀采”가 쓰인 다른 예문을 『漢韓大辭典』을 통해서 검색해 보았다.

41) 楊鍾賢·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卷5,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606쪽.

42) 『白話史記』卷3, 施人豪 譯,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1585쪽.

43)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卷6, 臺北: 天工書局印行, 1989, 5465쪽

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文理】……宋, 司馬光『進通志表』文理迂疏, 無足觀采.(문사에 담긴 뜻이 세상물정에 어둡고 민첩하지 못해 족히 찾아볼게 없다. 6권, 399쪽 )

【使星】……『後漢書·李郃傳』：“和帝即位, 分遣使者, 皆微服單行, 各至州縣觀采風謠. ……(황제가 즉위하여, 나누어 사자를 파견함에, 모두 평상복으로 입고 단독으로 움직이며, 각각 州縣에 가서 민가의 가요를 찾아보았다. ……1권 1065쪽)

위의 두 가지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采” 자체를 “풍도, 풍모, 풍채” 등으로 풀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漢語大詞典』 “采”의 19번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用同‘睬’。理睬。” 이것의 의미는 “采”는 “睬”와 같고, 다른 이의 언행에 대해 주의하는 태도를 표시하다(理睬：對別人言行給以注意並表示態度)의 의미가 된다. 여기서의 “睬”는 글자 자체가 “주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본다”라는 동작을 고려한다면, “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觀采”는 보다(觀)+보다(采)의 형태를 갖춘 同義復詞가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漢韓大辭典』 “觀采”의 의미해석은 “(주의 깊게) 찾아보다, 물색하다”로 수정해 주어야 타당하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번역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朴一峰과 田久川の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다른 학자들의 번역은 모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2. 意味解釋 補充修正

### 2.1 『漢韓大辭典』 6권 293쪽의 “效實” 항목

【效實 효실】1. 정성을 다함. 충성을 바침. 『三國志·魏志·荀彧傳』故天下忠正效實之士咸願爲用, 此德勝也. 2. 성의를 표시함. …… 3. 업적을 시사함. ……

먼저 “效實” 항목을 다른 대형사전에서 찾아보면 『漢韓大辭典』과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大漢和辭典』: ① 誠實をいたす.(성실함을 다하다)『魏志, 荀彧傳』天下忠正效實之士, 咸願爲用, 此德勝也. ② 力がみちる.(힘이 차고 넘치다) 實力.『史記, 酈生傳』示諸侯效實形制之勢.(5권 499쪽)

『中文大辭典』: 謂致其誠也.『史記, 酈生傳』示諸侯效實形制之勢.『三國志, 魏志, 荀彧傳』故天下忠正效實之士咸願爲用, 此德勝也.(4권 900쪽)

일단 위의 두 사전은 『史記, 酈生陸賈傳』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大漢和辭典』의 “힘이 차고 넘치다(力がみちる)”란 의미해석은 『漢韓大辭典』의 세 가지 풀이와는 확연히 다른 뜻을 알 수 있다. 나아가 『中文大辭典』의 “謂致其誠也”는 『漢韓大辭典』의 “정성을 다함”이란 풀이와 같지만 그 출전예문은 서로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史記, 酈生陸賈傳』에 사용된 “效實”는 과연 어떤 의미로 풀이해주는 것이 타당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해석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다.

金鎮浩: “……제후들에게 현재의 실제적인 형세가 누구에게 기울고 있는 지를 보여주십시오. 45)

林東錫: “……제후들에게 한나라가 실리를 차지하고 초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형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46)

金元中: “제후들에게 실력을 과시하고 유리한 지형으로 적을 누르고 있는 형세임을 보여 주십시오.” 47)

張連科: “讓諸侯們看看今天的實際形勢” 48)

汪中: “讓諸侯們看看今天的實際形勢” 49)

앞선 해석본을 참고해보면 첫째, 金鎮浩, 張連科, 汪中은 모두 “效實形制

45) 『史記列傳下』卷6, 丁範鎮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588쪽.

46) 『史記列傳』4/4,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829쪽.

47) 『史記列傳』卷2, 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7, 65쪽.

48) 楊鍾賢, 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卷4,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648쪽.

49) 『白話史記』卷3, 汪中 譯,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1349쪽.

之勢”를 “현재의 실제(체)적인 형세(今天的實際形勢)”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는 원문에서의 “效實”와 “形制”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고 몽뚱그려 번역하고 있다. 둘째, 林東錫은 문장의 대의를 살린 역역은 좋으나, “效實”과 “形制”에 대한 날카로운 풀이가 없는 것은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金元中의 풀이를 살펴보면 “실력과시”와 “유리한 지형으로 적을 누르고 있는”으로 나누어 “效實”와 “形制”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여 풀이하고 있다. 이에 김원중의 해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形制”의 의미를 다른 대형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大漢和辭典』: 地形で人を制服する.(4권 786)

『中文大辭典』: 謂以地形相制也. (3권 1533쪽)

『漢語大詞典』: 謂以有利的地理形勢來制馭天下.(4권 1114쪽)

『漢韓大辭典』: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천하를 제어함.(5권 181쪽)

위 네 가지 사전은 “形制”에 대해 대동소이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예문을 기재하고 있다.<sup>50)</sup> 그렇다면 김원중이 번역한 “유리한 지형으로 적을 누르고 있는”이란 표현은 매우 적절한 풀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번역이 옳은 이유는 『史記, 酈生陸賈傳』의 원문을 확인해 보면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오랫동안 싸워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동요할 것이니, 군대를 동원하여 滎陽을 탈환하고 敖倉의 식량을 손에 넣고 成皋의 요충지를 막아 太行山으로 가는 길을 끊고 蜚狐의 입구를 가로막고 白馬의 나루터를 지키라고 酈生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선점하여 천하를 제어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나아가 그는 “效實”을 “실력과시”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를 들어내 지리적 요충지를 선점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귀의해야 할지를

50)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은 『漢書, 酈食其傳』을, 『漢語大詞典』과 『漢韓大辭典』은 『史記, 酈生陸賈傳』을 출전예증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용은 일치하며 출전시기의 선후를 놓고 본다면, 『史記』가 『漢書』보다 이른 관계로 『漢語大詞典』과 『漢韓大辭典』의 출전예증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알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의 “效”항목 아홉 번째 의미해석인 “나타나다. 드러나다”의 풀이를 그대로 적용한 번역인 것이다. 즉 “실력을 드러내다” 혹은 “실력을 과시하다”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무방한 해석으로 인식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韓大辭典』 “效實” 항목에 “실력을 드러내다”라는 의미해석을 추가해 주고, 그에 합당한 『史記, 酈生陸賈傳』의 출전예문을 기재해 주어야 한다. 둘째,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의 『史記, 酈生陸賈傳』에 보이는 “效實”의 풀이는 부족함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셋째, 다섯 종류의 번역본 가운데 김원중의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내려진다.

## 2.2 『漢韓大辭典』 8권 526쪽의 “深念” 항목

【深念 심념】① 심사숙고함 『史記, 酈生陸賈傳』呂太后時, 王諸呂, 諸呂擅權, 欲劫少主, 危劉氏. 右丞相陳平患之, 力不能爭, 恐禍及己, 常燕居深念. 『司馬貞索隱』深念, 深思之也. ……② 매우 그리워함. ……

위의 의미해석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司馬貞의 『索隱』을 살펴보면 “深念”은 “深思”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正義』에 따르면 “國家不安, 故靜居深思其計策”이라 적고 있다. 이러한 풀이를 고려한다면 해당 의미해석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의 번역을 비교 대조해 보면 “深念” 항목의 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史記, 酈生陸賈列傳』의 원문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呂太后時, 王諸呂, 諸呂擅權, 欲劫少主, 危劉氏. 右丞相陳平患之, 力不能爭, 恐禍及己, 常燕居深念. 陸生往請, 直入坐, 而陳丞相方深念, 不時見陸生.<sup>51)</sup>

51)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卷5, 臺北: 天工書局印行, 1989, 4599쪽.

위 본문을 확인해 보면 또 하나의 “深念”이 연이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金鎮浩: “……항상 한가로이 지내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진승상은 마침 깊은 시름에 잠겨 있어”<sup>52)</sup>

林東錫: “……그저 몰래 집에 들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진승상은 생각에 잠기어”<sup>53)</sup>

金元中: “……조용히 있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진승상은 마침 깊은 생각에 잠겨……”<sup>54)</sup>

張連科: “……常常安居家中反復思索……在這時陳平正在深思”<sup>55)</sup>

汪中: “……便經常靜居深思……因為他正抱着深憂”<sup>56)</sup>

위 다섯 개 번역서의 “深念”의 풀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深思.” 둘째,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深憂.” 셋째, “반복적으로 생각하다-反復思索.” 즉, 김진호는 두 군데의 “深念”을 모두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深憂)”로 풀이했으며, 임동석과 김원중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深思)”로 해석했고, 張連科는 앞에 것은 “反復思索” 뒤에 것은 “深思”로 인식하였으며, 汪中은 앞의 것은 “深思”로 뒤에 것은 “深憂”로 다르게 구분했다. 또한 袁雪梅(2009)는 그의 논문에서 “深念”應當爲深憂義”라 주장하여 두 번 사용된 “深念”을 모두 “深憂”로 인식했다.<sup>57)</sup> 그렇다면 이 두 개의 “深念”을 어떻게 의미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까?

먼저 『漢韓大辭典』 5권 420쪽의 “念”의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①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③ 숙고하다, 고려하다”등과 더불어 “② 걱정하다”라는 풀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漢韓大辭典』이 “深念”

52) 『史記列傳下』卷6, 丁範鎮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596쪽.

53) 『史記列傳』4/4,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839쪽.

54) 『史記列傳』卷2, 金元中 옮김, 민음사, 2007, 74쪽.

55) 楊鍾賢 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卷4,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652쪽.

56) 『白話史記』卷3, 汪中 譯,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1585쪽.

57) 袁雪梅, 「『漢語大詞典』引『史記』疏漏學例」, 『圖書館雜誌』第11期, 2009, 96쪽.

를 “심사숙고함”, “매우 그리워함”으로만 풀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우 걱정하다”라는 의미항목을 추가해 주어야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필자는 다른 대형 사전이 “深念”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참고해 보았다. 『中文大辭典』 “深念”의 의미해석을 찾아보면 “窮思極慮也”라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窮思極想”의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온갖 지혜를 다 짜내다, 온갖 궁리를 다하다”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풀이가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正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國家不安, 故靜居深思其計策.” 즉 右丞相 陳平은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계책(온갖 지혜)을 다 짜낸 것이다. 따라서 “其計策”에 대해 “심사숙고”, “반복사색”, “온갖 궁리를 다 짜낸” 것이 된다. 적어도 그 계책에 대해 “깊은 시름에 잠겼다”라고 말하기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다른 문제점도 찾을 수 있다. 『中文大辭典』은 『漢韓大辭典』과는 다르게 司馬貞 『索隱』의 내용을 출전예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中文大辭典』은 원문만을 적어 놓고 있을 따름이다.<sup>58)</sup> 사실 『史記會注考證』을 확인해 보면 『索隱』의 내용은 “陸生往請, 直入坐, 而陳丞相方深念, 不時見陸生.”의 뒤에 기재되어 있다. 즉 『漢韓大辭典』의 출전예문의 뒤에는 바로 『正義』가 기재되어 있어야 옳은 것이다.<sup>59)</sup>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漢韓大辭典』은 『正義』를 생략하고 바로 『索隱』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이 『索隱』의 내용을 받아들여 앞의 “深念”과 뒤의 “深念”을 구분 없이 “심사숙고함”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이며 다른 의미해석의 여지는 두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58) 『大漢和辭典』도 원문만을 적어 놓고 있으며 『正義』나 『索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59)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卷5, 臺北: 天工書局印行, 1989, 4599쪽: “呂太后時, 王諸呂, 諸呂擅權, 欲劫少主, 危劉氏. 右丞相陳平患之, 力不能爭, 恐禍及己, 常燕居深念. 『正義』國家不安, 故靜居深思其計策. 陸生往請, 直入坐, 而陳丞相方深念, 不時見陸生. 『索隱』深念, 深思之也.”

그렇다면 원문의 두 번째 “深念”도 “심사숙고하다”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앞선 본문 내용의 연이은 뒷부분을 살펴보겠다.

陸生曰：“何念之深也？”陳平曰：“生揣我何念？”陸生曰：“足下位爲上相，食三萬戶侯，可謂極富貴無欲矣。然有憂念，不過患諸呂’少主耳。”

먼저 “足下” 이하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벼슬이 우수상에 올라 3만 호의 식읍을 가진 열후가 아닙니까? 부귀가 극에 달하여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도 걱정이 있다면 뭘 일족의 횡포와 어린 황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일 겁니다.”<sup>60)</sup> 즉 “憂念”과 “患”이 사용되어 右丞相 陳平이 확실히 “근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심 걱정하는 정황이라 한다면 “何念之深也”은 “무슨 근심이 그리 깊은신가요”로, “生揣我何念”은 “육생 당신이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헤아릴 수 있게 소”로 번역해 주어 “念”을 근심하다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두 번째 深念”은 “깊은 시름에 잠기다”로 인식해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정리해보면 『漢韓大辭典』 “深念”은 “깊은 시름에 잠기다”의 의미항목을 추가 기재해 주어야 타당하며, 司馬貞의 『索隱』을 삭제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다섯 가지의 해석본 가운데 汪中の 번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되며, 두 군데의 “深念”을 모두 “深憂”로 인식하는 袁雪梅(2009)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 III. 結言

본 논문은 『漢韓大辭典』에 기재된 『史記·列傳』 관련 어휘 가운데 드러나

60) 위에서 언급한 5개의 해석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일치된 번역을 하고 있다.

보이는 다섯 가지의 문제를 糾正한 것이다. 필자는 크게 意味解釋 誤謬修正, 意味解釋 補充修正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意味解釋 誤謬修正에서는 “假與”, “校飭”, “觀采”의 풀이가 『漢韓大辭典』에서 잘못 기재되어있음을 밝혔다. 독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그럴듯한 해석으로 본의를 상실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각은 “빌려 줌→주다”, “정리함→옛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꾸밈, 수식, 교정윤식(색)”, “관찰하여 채택함. 살펴서 취함→(주의 깊게) 찾아보다, 물색하다”로 의미해석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意味解釋 補充修正에서는 “效實”, “深念”의 의미항목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실력을 드러내다”, “깊은 시름에 잠기다”의 풀이를 보충해 주었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의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假與” 항목은 정수국의 풀이가 가장 정확했다. 기타 국내학자들은 “빌려주다”로 풀이하여 『漢韓大辭典』의 오류와 일치했다. 그 밖의 중국학자들은 지나친 의역을 하여 “假與”의 본의를 손상시켰다. “校飭” 항목은 朴一峰, 禰念曾, 王延海의 풀이가 비교적 타당했다. “觀采” 항목은 朴一峰과 田久川の 번역이 적합했다. “效實” 항목에서는 김원중이 올바른 해석을 했으며, “深念” 항목은 汪中の 번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료된다.

필자가 발견한 몇 가지 어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漢韓大辭典』의 『史記』와 관련된 다른 항목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배학자들이 연구한 『史記』 번역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史記』는 오늘날의 한국인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위상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전의 오류수정은 자연히 『史記』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후학들의 의무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필자는 이후에도 『漢韓大辭典』에 보이는 『史記』 관련 어휘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사전의 문제를 수정하는 일은 文化史, 文學史, 文獻學, 文字學, 言語學, 한국어 표현능력 등 모든 학문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따라서 『史記』 전공분야 여러 연구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協業의 결과는 한국학과 동양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한자문화권의 인접 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序言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한대사전편찬실’의 제 1과제는 『漢韓大辭典』의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 보완하는 일이 될 것이다. 尹勝俊 역시 그의 논문 「『漢韓大辭典』의 편찬 과정과 향후 계획」에서, 재조직된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은 『漢韓大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을 통합, 수정, 보완하고 디지털화하여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61)</sup> 필자의 연구와 그들의 후속 사업은 그 맥이 같다고 생각한다.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 참고 문헌

-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史記』, 金元中 옮김, 민음사, 2007.  
 『史記』, 朴一峰 역저, 육문사, 2011.  
 『史記』, 林東錫 譯註, 동서문화사, 2009.  
 『史記』, 丁範鎭의 옮김, 도서출판까치, 1997.  
 楊鍾賢·郝志達 主編 『文白對照全譯史記』,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  
 王利器 主編 『史記注譯』, 北京: 三秦出版社, 1988.  
 龍宇純의 『白話史記』,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9.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 臺北: 天工書局印行, 1989.  
 洪北江 主編, 『史記三家注』, 臺北: 樂天書局, 1974.  
 管錫華, 「『史記』词语古今釋義考正」, 『四川師範大學學報』第29卷 第1期, 2002.

61) 동양학연구원 편, 「『漢韓大辭典』의 편찬 과정과 향후 계획」,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 管錫華, 許巧雲, 「『史记』词语古今注译辨正」, 『四川師範大學學報』第38卷 第2期, 2003.
- 楊琳, 「『史记』疑难词语解诂」, 『古漢語研究』, 2009.
- 吳曉燕, 「关于『史记·魏其武安侯列传』的“引绳批根”」, 『綏化學院學報』第22卷 第4期, 2006.
- 王彥坤, 「『史记』所见辞书未收词语考释」, 『中國語文』, 2005.
- 王彥坤, 周若虹, 「『史记』所见辞书未收词语续释」, 『佛山科學技術學院學報』第24卷 第1期, 2006.
- 于智榮, 「『史记』“勿听治”别解」, 『長春師範學院學報』第20卷 第4期, 2001.
- 袁雪梅, 「『漢語大詞典』引『史記』疏漏學例」, 『圖書館雜誌』, 2009.
- 程志兵, 「『漢語大詞典』书证商补」, 『保定師專學報』, 1998.
- 朱成華, 「『史记』提前『漢語大詞典』书证迟后九则」, 『傳奇·傳記文學選刊』, 2011.
- \_\_\_\_\_, 「『漢語大詞典』引『史记』之雙音动词释义商榷」, 『渭南師範學院學報』第27卷 第5期, 2012.
- \_\_\_\_\_, 「论『史记』雙音动词在辞书编纂上的價值」, 『哈尔滨學院學報』第34卷 第1期, 2013.
- \_\_\_\_\_, 「『漢語大詞典』失收『史记』双音动词考」, 『遼東學院學報』第15卷 第1期, 2013.
- \_\_\_\_\_, 「『史记』同素并列逆序双音动词与辞书编纂」, 『渭南師範學院學報』第28卷 第7期, 2013.
- 漆灝, 「『史记·日者列传』语词札记」, 『湖南科技學院學報』第26卷 第2期, 2005.
-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8.
-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
-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59.
- 『漢語大字典』,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5.
- 『康熙字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辭源』,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3.
- 『史記辭典』, 山東: 山東教育出版社北京, 1991.
- 『中韓辭典』, 高麗大學校出版社, 1994.
- 『中中韓辭典』, 延世大學校大學出版文化院, 2015.
- 『中國大百科全書, 言語文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

❖ ABSTRACT

A Study on Error Analysis of Words Used in *Shiji Liezhuan*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Choi, Tae-Hoon

This article attempts to correct errors in five words related to *Shiji* (The Grand Scribe's Records) *Liezhuan* (A Series of Biographies), which are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e author analyses the problems with meaning interpretations of three words and additional meaning interpretations of two words. The main poin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irst, in relation to the error correction in meaning interpretation,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explanations of "jiayu," "jiaochi," and "guancai"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are incorrect. Most of the cases include plausible interpretations of the words that are likely to cause readers to be confused with the meanings. Each of the words should be interpreted as "lend→give," "arrangement →new decoration, ornamentation, or embellishment after removing old one," and "accept something carefully or accept something after inspection→look over carefully or search for something." Second, as for the supplementary correc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explanations of "xiaoshi" and "shennian" are not sufficient. The following meanings for each word should be added, including "display skills" and "be trapped inside one's own mind." Furthermore, when comparing with the different translation versions by scholars at home and abroad, we can come to a following conclusion. The interpretations made by Zheng, Fan-Zhen are the most accurate for the "jiayu" item. With respect to the "jiaochi" item, the interpretations given by Piao, Yi-Feng; Wang, Li-Qi; Yang, Zhong-Xian; and Hao, Zhi-Da are relatively appropriate. The "guancai" item is adequately interpreted by Piao, Yi-Feng and Wang, Li-Qi. In the meaning interpretation of the "xiaoshi," Jin, Yuan- Zhong gave correct explanation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Wang, Zhong provided the most ideal translations for the item "shennian."

---

Key Words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Shiji Liezhuan*, jiayu(假與), jiaochi(校飭),  
guancai(觀采), xiaoshi(效實), shennian(深念).

논문접수일: 2015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2015년 09월 07일

게재확정일: 2015년 09월 08일